

인공지능(AI) 혁신의 대장정 개막 ... 관세청,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 출범

- 업무, 기술, 현장을 잇는 본청·전국세관 통합 추진체계로 실행력 강화
 - 단기 과제 발굴부터 데이터 리더블화, 중장기 로드맵까지 단계별 혁신 본격화
- 【관련 국정과제】 24.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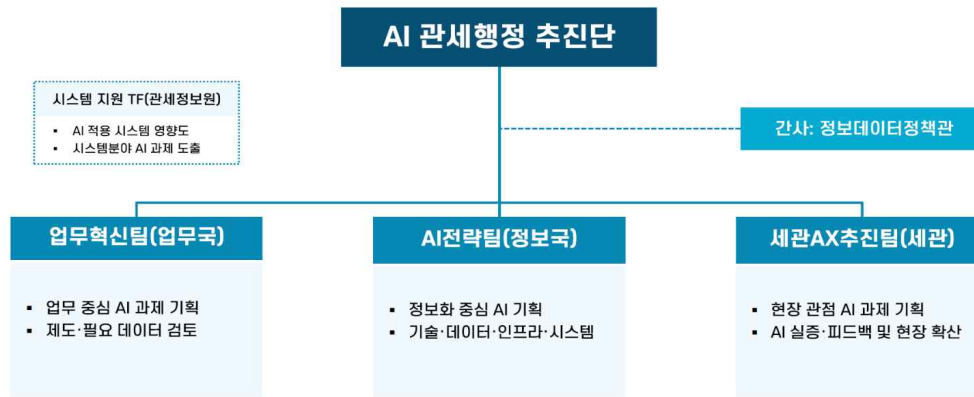
관세청은 3월 6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신비전을 수립한 이후,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기존에 구축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인공지능혁신팀’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해 정보화 조직을 정비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미래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인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이러한 실무적 기반 위에 전국 관세청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인공지능(AI) 활용은 위험물품 선별 등 특정 업무 분야에서 개별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본청과 현장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업무, 기술, 현장을 아우르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본청 업무부서와 정보화·데이터 부서, 일선 세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정책 설계에 적용하고,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기존 부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조직



올해 추진단은 그간 축적된 무역 데이터, 내부 인공지능(AI) 인재 등 기존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단기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세관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전국세관 인공지능(AI) 붙임 챌린지’를 개최해 우수 혁신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관세데이터 인공지능(AI) 리더블화**’도 착수해 인공지능(AI)이 효율적으로 활용,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OCR(광학문자인식기술)등 신기술 확보 또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AI)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인공지능(AI) 관세행정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인공지능(AI)은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관세청 모두의 과제”라며, “추진단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양방향 소통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추진단 출범은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한 국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의 단계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현장과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기동 (042-481-7760)
		담당자	사무관	권병학 (042-481-7951)

